

NEWS 방송계 동향

CBS



CBS 표준FM 수원지역 난청 문제 해소

CBS는 표준FM 수원지역 난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산에 방송 보조국을 두고 지난달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달부터 100.7MHz 주파수로 수원 전 지역에서 CBS 표준FM을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 있다.

MBC

MBC,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방송시작



8월 18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막했다. IBC(국제방송센터) 내의 MBC 방송센터는 8월 5일, 영상 송출 장비와 화선 설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곳에서 각 경기장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영상 가운데 MBC 방송에 사용될 화면을 선별해 국내로 전송하는 부조정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경기를 중계하는 간이 스튜디오, OFF-TUBE 공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아시안게임 참여 결정이 늦어지면서 IBC 공간을 늦게 할당받아 몇십 미터 떨어진 공간을 광전송 장비를 통해 하나의 공간처럼 구성되었다. 선발대로 출국한 중계진이 고생 끝에 만들어낸 결과다. MBC의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은 평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며, 우리 대표팀의 경기 일정과 결과에 따라 늦은 밤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다.

MBC, 새 모바일앱 출시

MBC는 새 모바일 앱을 통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 TV 중계를 로그인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시보기, 하이라이트 보기 등을 서비스했다. 또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는 '온에어 플러스' 기능과 방송 영상 외에 현장 포토, 메이킹, 관련 뉴스 등 부가 콘텐츠를 제공하며 표준FM, FM4U, 올댓뮤직 등 라디오 채널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새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플레이스토어에서 'MBC 아시안게임'으로 검색하면 된다.

OBS

OBS, 인천 부속도서 뒷이야기 전하는 로드다큐 '그리우니 섬이다' 방송



인천 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최초로 공개된다. OBS가 로드다큐 '그리우니 섬이다'(12부작)를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분에 첫 방송하였다. '그리우니 섬이다'는 섬 사진작가 5인방이 함께하는 특별하고 색다른 '인천 섬의 스토리 기행'이다. 그들의 렌즈에 담긴 섬의 문화, 섬의 비밀과 전설, 섬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OBS 제작진은 사진작가 5인방과 함께 덕적도, 소야도, 굴업도,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인천의 주요 섬을 찾아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천 섬의 해석과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냈다.

SBS

한국 민영방송 기술인협의회 개최



한국 민영방송 기술인협의회가 8월 22일 SBS 목동 사옥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지난 KOBIA 이후 다시 한번 만남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SBS 목동 사옥의 시설과 방송 환경을 살펴보고 민영방송 기술인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신규 위성방송국 론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 전파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함에 따라 마침내 KT스카이라이프는 무궁화 7호 신규 위성을 활용한 초고화질 및 다채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과기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고 8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무선설비 송신소는 적도상공 정지위성궤도 동경 116도에 위치한 무궁화 7호 위성이며, 연주소는 목동방송센터로 전파형식은 27M0G7W,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27MHz, 안테나 공급전력은 150W(실효복사전력 60.6dBW)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위성방송국의 개설 허가로 국내 위성방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위성방송 시청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BBS

BBS 제주불교방송 (FM 94.9 MHz), 9월 개국



BBS 제주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달 제주시 탐동 소재 제주불교방송 연주소에서 위원장 허운 스님을 비롯한 설립추진위원들과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회의를 열고 개국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오는 9월 BBS 제주불교방송이 개국하면 제주지역 20~30%의 자체 제작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 제주 홍보 등으로 제주불교방송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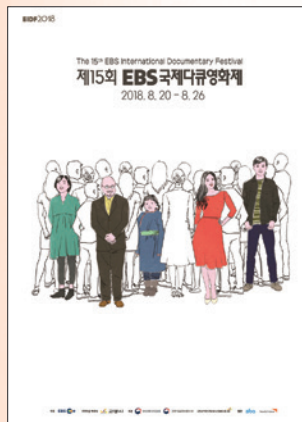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국제방송 조직개편 및 순환보직 실시

아리랑국제방송의 직제 규정이 2본부 1센터 12팀에서 2본부 6센터 4팀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인프라팀과 제작기술팀으로 나뉜 기술부서가 기술센터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슬림화와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이와 더불어 기술부서 내 순환보직이 실시되어 10여 명의 인력이 기존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로 보직 변경이 되었다.

EBS

제15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열려



EBS가 주최하는 제15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EBS 국제다큐영화제는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EBS 1TV와 온라인 플랫폼 D-BOX, 오프라인극장을 통해 전 세계 33개국 72편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특히, 올해는 EBS 스페이스홀에서 진행되는 15주년 기념행사 '쿨 서머 나이트'를 비롯해 고양시 호수공원 야외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특별 포럼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강화해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큐 축제로 진행했다.

YTN

YTN 신임 사장에 정찬형 전 tbs 사장 내정

YTN은 지난 5월 전 최남수 사장의 사퇴에 따라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선임을 진행한 결과 지난 7월 27일, YTN 사장에 정찬형 전 tbs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YTN은 9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며, YTN 보도국장으로 2008년 MB 정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뒤 복직한 현덕수 부장을 내정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18년 3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9월 5일 11시 한국방송회관 10층의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에서 3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방송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분기별 개최된다.

tbs

대학입시정보도 tbs에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9월 수시원서접수를 앞두고 8월 11일(토)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tbs 수시대비 대학입시정보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현직교사로 구성된 공교육 진학전문가가 'tbs 1:1 무료 수시 현장상담' 코너를 진행하여 대면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은 월, 화 저녁 8시 tbs 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KBS

미래를 준비하는 미디어 기업 세미나 개최

KBS 방송기술인협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방송기술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일련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미디어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통신사 중 KT의 5G 준비 동향과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8월 28일 개최하였다. "5G, 미디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미래를 진단하고,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기획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KBS 내 방송기술인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 간에 열띤 토론과 고민의 장이 되었다.

VR 이용한 미스터리 추리예능 9월 방영



KBS가 9월 9일과 16일 밤 11시 30분에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미스터리 추리예능 '도시전설'을 방송한다. '도시전설'은 국내 도시 곳곳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추리하는 프로그램으로, VR과 게임 등을 이용해 출연자들이 가상세계에 떨어졌다는 설정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연내 15,000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보급을 시작했다.

방통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7월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소득, 장애등급 등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을 시작한다. 올해 총 보급대수는 15,000대로서 지난해 보다 3,000대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보급예정인 TV는 80cm(32형)로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분리 기능을 추가하였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송화면 부분 확대 기능 등을 추가하였다. 방통위는 하반기에 시·청각장애인용 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8년 실감미디어 심층기술 워크숍 개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초실감 서비스 실현을 위한 Immersive Media'를 주제로 실감미디어 심층기술 워크숍을 9월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3D 미디어인 MPEG-I(Immersive) 표준화를 통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Light Field의 이론적 배경과 이에 대한 기술 응용 사례를 비롯해 Immersive Audio, Point Cloud & Holography의 세부주제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은 9월 3일까지 접수한다.

Exhibition

주요 전시 일정

09

SEPTEMBER 2018

KOSOUND+
STAGETECH
2018

전시회명 : 국제음향·무대·조명·영상산업전
(KOSOUND+STAGETECH 2018)

전시일정 : 2018.09.05.~09.07

전시장소 : 고양 킨텍스(KINTEX) 8홀

홈페이지 : www.kosound.co.kr



전시회명 : 2018 국제방송영상경연본시 (BCWW 2018)

전시기간 : 2018.09.05.~09.07

전시장소 : 코엑스 1층 B홀

홈페이지 : bcww.kr



전시회명 : 2018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및 컨퍼런스

전시기간 : 2018.09.12.~09.14

전시장소 : 코엑스 3층 C홀

홈페이지 : www.iotkorea.or.kr



전시회명 : 암스테르담 방송장비전 (IBC 2018)

전시기간 : 2018.09.14.~09.18

전시장소 : 네덜란드 RAI 전시장

홈페이지 : show.ibc.org

한국방송협회,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협회가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을 9월 3일 오후 3시에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한다. 전국 지상파 방송사에서 내부 경쟁을 거쳐 출품된 201개 작품과 88명의 방송인을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23편의 작품과 22명의 방송인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앉았다. 작품상에는 △중단편드라마TV부문 KBS <쌈, 마이웨이> △음악구성부문 MBC <조PD의 비틀즈라디오> △에너지라이어티부문 SBS <집사부일체> △다큐멘터리TV부문 KBS <2017 KBS대기획 UHD다큐멘터리 '순례' 4부작> 등 22개 부문 23편이 선정됐었고, 개인상에는 △공로상 최불암(KBS <한국인의 밥상> 등) △가수상 방탄소년단(MBC <소음악중심> 등) △코미디언상 박나래(MBC <나혼자 산다> 등) △조명상 이경일(KBS <찬상의 컬렉션> 등) △기술진흥상 박찬호(SBS UHD 3D 실감오디오방송 <문화가 중계> 등) 등 21개 부문 22인이 선정되었다.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SBS를 통해 생중계되며, 영예의 대상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된다.

DMC 페스티벌(DMCF 2018),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펼쳐져



DMC 페스티벌은 상암 DMC를 배경으로 MBC와 서울시가 펼치는 문화 축제로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의 중심인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거리축제, 체험전과 볼거리를 선보인다. 9월 5일부터 5일간 계속되며 'DMC에서 놀자!(Enjoy DMCI)'를 슬로건으로 상암문화광장, MBC 골든마우스홀, 누리꿈광장 등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특집 슈퍼콘서트', '라디오 DJ 콘서트', '복면가왕 더 워너(The Winner)', '코리안 뮤직 웨이브', 'A.M.N 빅콘서트' 총 5개의 공연이 하루마다 개최되며, 올해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지난 2015년과 2016년보다 풍성하게 열린 전망이다. 9월 5일과 6일에는 '보이는 미래 컨퍼런스'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과 기술의 미래(MAKER MOVEMENT, 인공지능)를 주요 세션으로 살펴본다. 또한, VR, AR, MR과 관련된 기술 콘텐츠 전시 및 체험을 위한 'KVRF 2018'는 DMCF 기간 동시 개최되며, 전시회와 컨퍼런스,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음악인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국제 뮤직 마켓인 MBC의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서울국제뮤직페어가 통합한 '2018 A.M.N. & MU:CON'은 9월 10일부터 3일간 상암 MBC와 흥대 상상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소식은 dmcfestival.imbc.com에서 제공된다.